

세계 최정상 브레이킹 댄서들 한자리에

‘제19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 성황리 개최… 치열한 경쟁 속 ‘EIGHT’ 대상 영예

세계 최정상급 브레이킹 댄서들이 격돌한 ‘제19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에서 ‘EIGHT’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며 정상을 차지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국내외의 브레이킹 댄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9회 전주 비보이그랑프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자녀법인’ 라스트포인 이 주관한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2007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9회를 맞은 국내 최장수 브레이킹 배틀 대회로, 매년 정상급 브레이킹 댄서들이 참여해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팀이 참가해 예선부터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이날 본선에 오른 8개 팀은 팀별 개성 있는 퍼포먼스와 고난도 기술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대회 결과, 우승은 ‘EIGHT’이 차지해 상금 1000만 원을 거머쥐었다.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9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열린 가운데, 대상을 차지한 ‘EIGHT’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위를 차지한 ‘BREAK POINTS’에는 상금 400만 원과 상패가 공동 3위를 차지한 ‘CAY CREW’와 ‘FMC YG’에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세계 연합팀 2팀과 중국 청소년들이 참여한 중국

팀 1팀이 눈길을 끌었다. 이 중 세계 연합팀 ‘EIGHT’는 1위, ‘BREAK POINTS’는 2위를, 중국팀 ‘Bombam nova’는 본선에 진출하며 세계 메이저 배틀 대회에 진출할 만한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박인수 전 국가대표를

포함한 국내 정상급 크루와 일본, 대만, 브라질 등 해외의 브레이킹 댄서들이 한 무대에 오르며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를 통해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국내 대회를 넘어 세계 브레이킹 댄서들이 교류하는 무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연 외에도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됐다. 오프닝에서는 전주 출신 국가대표 비걸 전지예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심사위원들의 쇼케이스가 펼쳐졌으며, 스트릿댄스팀 ‘한어(HANYA)’와 청소년 워킹댄스팀 ‘쏘왓(SO WHAT)’의 특별공연도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와 함께 행사장 일원에서는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와 팝업스토어 등 스트리트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운영돼 시민과 관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박인수 전 국가대표를 /권희성 기자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나선다

제6기 영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 15명 모집

전주시가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쳐 나갈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6기(2026-27)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환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말하기 위주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선발된 장학생들은 △어학집중코스과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개인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2주 과정의 활동보고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연수 국가는 미국이다.

선발인원은 15명(도내 대학생 10명, 도외 대학생 5명)이며, 이중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별도로 1명을 선발한다. 연수생 자부담 비용은 1인당 200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서 전북 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검정고시 졸업 자격을 합격한 대학생이다. 성적은 직전 학기 B+이상이어야 하며, 선발된 경우 어학연수 참여를 위해 올해 2학기를 휴학해야 한다.

선발심사기준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학업성적 30점과 어학자격증 20점, 생활정도 20점을 기본으로, 자원봉사 실적 최대 1.5점을 가산점으로 반영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게 된다. 이후 2차 면접 심사 30점을 합산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장학생이 선발된다.

접수 방법은 (재)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완산구 현무1길 31-5, 청년이음전주 4층, 063-283-5501)에 직접 방문하거나, 제단 누리집(www.jinjac.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천년고도 전주, 역사속 밤마실’

‘전주국가유산아행’ 6월 5~6일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 진행

천년의 시간을 품은 도시 전주에서 역사 이야기와 함께 밤마실을 즐기는 특별한 여정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6월 5일과 6일 이틀간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전주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전주향교, 전라감영 등 전주 구도심 일원에서 ‘2026 전주국가유산아행’을 개최한다.

‘천년고도 전주, 역사속 밤마실’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아행은 후백제 왕도였던 완산주(完山州)부터 조선시대 전주부(全州府)를 지나 오늘날 전주시에 이르기까지, 전주시는 도시가 간직한 다채로운 역사를 축재 콘텐츠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8개 분야 2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아행은 프로그램별 스토리와 체험 요소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전주의 천년 역사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후백제 역사 활용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있게 담았다. 구체적으로 견훤이 후백제의 왕도로



전주를 선택한 배경 등 지역이 가진 역사적 위상을 참여·체험형 콘텐츠로 풀어내 전주만이 가진 차별화된 역사문화의 가치를 보다 친숙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왕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 △견훤대왕배 씨름대회 △후백제의 왕궁 산성행 등이다

이 가운데 잃어버린 후백제를 찾아서’는 스탬프투어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이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후백제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와 이야기를 만나도록 구성했다.

또한 ‘견훤대왕배 씨름대회’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후삼국 시대를 이끈 견훤의 기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흥겨운 민속놀이인 장로구름 퍼뜨리기와, 대회 중간에는 전주 예술인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경기의 열기를 더하고,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후백제의 왕궁, 산성행’은 광장근교수(군산대학교 역사학과)와 함께 하는 역사 기행 프로그램으로, 아행객들은 동고산성·종관대 등 전주 곳곳에 남아있는 후백제 유적지를 직접 둘러볼 수 있다.

이외에도 올해 전주아행에서는 △국가유산 공포 체험 ‘경기전 쯔비실록’ △미션 숨바꼭질 ‘향교괴담’ △아간경관 조성 ‘국가유산 빛나는 공간’ △풍남문 국악 공연 ‘뜻밖의 국악’ △역사 활용 미니게임 ‘국가유산 진검승부’ △차 한 잔의 휴식 ‘국가유산 달빛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리뉴얼해 국가유산이 가진 또 다른 매력에 관람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권희성 기자

1388청소년지원단 재능기부로 위기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29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위기청소년 21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직업체험 프로그램인 ‘꿈멘토와 꿈꾸다’를 운영했다.

‘꿈멘토와 꿈꾸다’는 청소년들이 꿈멘토를 직접 만나 직업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위해 전주시 청소년안정망 1388 청소년지원단(복지지원단) 소속 기관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위기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조영희 꿈멘토(공전 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 부원장)로부터 파티셰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재능기부 활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자신만의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이끈 공전요리제빵미용직업전문학교는 지난 2013년 1388 청소년지원단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케이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위기청소년들이 희망했던 파티셰 직업 체험도 무료로 제공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제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가진 노인을 선발하는 ‘제4회 건치노인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건치노인 선발대회는 평소 꾸준한 구강 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격려하고, 노년기 구강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참가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9일까지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로 사전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대회는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진행되는 1차 걸진일 예선을 거쳐 잔존치 개수와 치주 상태, 보철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고득점자 20명이 본선 진출자로 선발된다. 이후 시는 오는 6월 9일 본선 및 시상식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를 비롯한 본선 참가자에게는 전주시치과의사회 후원으로 상장과 상품 등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시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건치노인 선발대회와 더불어 오는 6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도 운영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시민들에게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입속 건강 톨렛, 입근육 운동 체험 등 다양한 구강건강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구강건강은 음식 섭취와 영양 관리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한 구강 관리 실천 분위기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공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채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